



이덕수 원장, 모교 발전 위해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제15회 동문인 이덕수 원장(이덕수 내과의원)이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 임석태 의대 학장과 졸업 동기인 이 원장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모교와 의대 후배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 이 원장은 의대 30주년 기념식을 기념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덕수 원장은 "항상 내 삶의 자부심이 된 전북대 의대를 졸업한지 어느덧 30년이 돼, 친구와 의대 후배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작은 마음이지만 크게 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수 원장은 전주 인후동에서 이덕수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평소에도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치매환자가정 가스안전장치 마련

남원시 24일, 시장실에서 남원새마을금고(이사장 우기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배승근)와 독거치매·부부치매 환자 195가정에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을 맞아 치매환자가정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 폭)를 설치, 치매환자만 거주하는 가정의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남원새마을금고는 매년 앞장서서 주변의 이웃을 위해 현금기탁 또는 현물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독거치매환자와 부부치매 환자를 위해 975만원을 기부한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가스안전장치 설치대상자를 선정해 설치와 완료검사를 담당하고, 새마을금고는 설치업체 선정·계약 과 설치비지급, 가스안전공사는 설치 업체 관련 자료제공과 완료검사사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구면, 자율방범대 청소년 보호·선도 캠페인

김제시 금구면(면장 윤상철)은 24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방범대,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약 30명의 인원이 모여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 및 유해환경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홍보 어깨띠 착용 및 제상을 바꾸는 날 청소년 대한민국의 힘이나 라는 슬로건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점심시간 중 인근 상인 대상으로 금주초·중학교 일대 상가 및 편의점 방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와 불법 고동 금지 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의 주의사항을 전달했고 학생들 대상으로는 학교 폭력 근절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진행하였다.

최후전 청소년 지도위원회 회장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취업인식전환교육 실시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양병오, 이하 센터)는 24일 시 평생학습관 에서 구직자 70명을 대상으로 '책으로 찾는 색다른 내!' 라는 주제로 취업인식전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컬러인스토리 대표 이명희 강사가 컬러의 성질을 이용한 성향 및 심리상태를 파악, 삶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힐링 컬러 진단하기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위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하였다.

교육 참가자는 "특강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재취업 및 창업에 대해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센터는 직업교육훈련, 여성새일인턴십, 집단상담 프로그램, 여성친화환경개선사업, 경력단절예방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063-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전북문화관광재단-군산의료원 업무협약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4일 군산의료원 회의실에서 군산의료원(원장 김경숙)과 전라북도 예술인 의료복지 증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전 대표이사과 김경숙 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라북도 예술인 의료복지와 예술 창작활동 발전을 도모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한다.

또한,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서 예술인의 의료복지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및 협력할 계획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서남권인 남원의료원에 이어 오늘 새만금 권역인 군산의료원과의 협력으로 전북 예술인의 복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예술인들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편리하고 우수한 군산의료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비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숙 원장은 "군산의료원은 의료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전라북도 예술인들을 위한 의료복지 및 사회공헌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내 예술인이 건강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진안 부귀면, 국가유공자 가정 찾아 명패 달아드려

진안군 부귀면(면장 박춘선)은 24일 국가 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문구가 적힌 명패를 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명패를 달아드리므로써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유족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코로나19 예방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 9가구를 세대별로 방문해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명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6.25 전쟁에 참전한 故정관섭님의 배우자인 우중에 어르신은 명패를 수령한 후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남편과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던 때가 생각한다"며 "잊지 않고 찾아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주 뜻깊으며 남편의 희생에 대한 아픔을 기억해주고 위로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춘선 면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가정에 직접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부부의 날 맞아 다문화가족 대상 부부교육

무주군은 무주군가족센터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날 기념 행복플러스 부부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플러스 부부교육은 총 4회기 진행되고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문화 및 의사소통의 차이로 인한 갈등, 감정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가족간의 이해와 포용을 위하여 부부 관계소통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번 행복플러스 부부교육은 기존의 딱딱한 교육의 이미지를 벗어난 프로그램으로 부부간의 소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언어 및 문화, 생활습관의 차이에 대한 간격을 좁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일 진행된 첫 행복플러스 부부교육은 화려한 고백이라는 주제로 무주읍 해로리문화공간에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미니정원을 꾸미고 사랑과 희망을 심는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눈길을 끌었다.

다음달 10일 4회기의 부부교육이 마무리되면 참여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도 마련해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하고 관계회복을 통해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상전면, 행정지원과 직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요섭)은 24일 군 행정지원과 직원 등 20여명이 나서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필요한 고령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과수 및 고추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주경리 일원 6,850㎡(약2.07畓) 규모의 사과 적과 및 고추 수확기 작업을 추진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농가는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내 일처럼 도와주는 직원들 덕분에 적기에 작업을 끝내 성공적인 수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요섭 면장은 "일손돕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준 것 같아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손돕기를 추진하여 주민들과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보건소-전주대, 보건관리학과 현장실습 협약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이 완주군 보건소에서 현장의 경험을 쌓는다.

24일 완주군은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와 현장실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미경 보건소장과 장선일 전주대학교 의과대학학장을 비롯한 6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보건관리에 양성되어 일조하게 됐다. 보건관리사는 보건의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생성해 양질의 의료와 환자의 질병예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7월부터 실시되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영양플러스·금연·방문간호·치매 등의 건강증진업무에 참여해 보건관리 현장실습을 실시하게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 배현호 학생, 전북도 자랑스런 청소년상 수상



장수군 배현호(전북유니테크고 1학년) 학생이 전라북도에서 선정하는 제9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행 부분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배현호 학생은 장수 YMCA 동아리인 피스메이커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점을 높게 인정 받았다.

배 군은 매주 토요일마다 30회 이상 동아리 모임을 이끌면서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 연습 및 타인 존중 훈련 습득 등을 실천했으며, 온라인상에서 월 2회씩 미얀마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는 교류 활동에도 참여해 제3세계 국가 청년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에 동참하며 시야를 넓혔다.

또한 평화 감수성 증진 및 비폭력 대화 방법 전수, 조화로운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양질의 돌봄 봉사를 실천하며 학교 및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을 갖고 넓은 무대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정읍농기센터, 생활문화 우리 떡 지도사 과정 마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는 24일 2022년 생활문화 기술교육인 '우리 떡 지도사 자격증' 교육을 마치고 수료생 19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참여형 실습 교육으로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생활 기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지역 활용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을 양성해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 쌀 소비 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지난 3월 신청을 통해 모집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내용은 국가자격증 '떡 제조기능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떡에 대한 이론과 실기, 백편, 인절미, 부꾸미 등 쌀을 활용한 떡 만들기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쌀 생산품의 다각적인 활용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빵에 밀려난 전통 떡의 우수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효과를 꾀했다는 평이다.

해당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국가자격증인 '떡 제조기능사'와 민간자격증인 '우리 떡 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고 쌀 소비 촉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NH시네마와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와 NH시네마(대표 김준)는 24일 다문화가족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상생 및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환주 남원시장과 NH시네마 김준 대표, 이상덕 가족센터장, 결혼이민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와 NH시네마 간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문화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사항은 다문화가족의 영화 관람료를 20% 상시 할인, 지역상생 및 복리증진에 관한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김준 NH시네마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남원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도움을 주신 김준 NH시네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다문화 가정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 양면 지원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